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배포 일시	2021. 9. 29.(수)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항만연안재생과	담 당 자	• 과장 김규섭, 사무관 음현규, 주무관 이소영 • ☎ (044)200-5980, 5978, 5982
보 도 일 시		2021년 9월 30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9. 29.(수) 11:00 이후 보도 가능	

인천 원도심 살리기 위한 첫 발 내딛는다

- 해수부,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 개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9월 29일(수)부터 우선협상대상자인 '인천항만공사(IPA)'와의 협상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인천항 내항과 원도심을 연결하여 원도심의 활력을 높이고, 인천항 내항 지역을 글로벌 해양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천항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총 5,003억 원을 투입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에 42만 8천㎡(수역 4천 5백㎡ 포함) 규모의 해양문화 도심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 9월 인천항만공사가 사업계획 제안서를 제출한 이래, 제3자 공모 등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평가과정을 거쳐 지난 8월 인천항만공사를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후 정부는 협상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개발·회계·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하였으며, 29일부터 진행되는 인천항만공사와의 협상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안)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사업시행조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는 지역의견 반영을 위해 인천시 담당자도 직접 참여할 계획이며,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협상을 마무리한 후 2023년 사업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김창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그간 다소 더디게 진행되었던 인천항 내항 재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 원도심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주민생활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인천항만공사(안))**

□ 사업 개요

- ㅇ **(목적)** 배후도심 조화를 통해 역사·문화를 중심으로 한 여가·관광 기능 발휘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활기찬 도심기능이 가능토록 개발
- ㅇ **(면적/기간)** 428,3166㎡(공유수면 4,500㎡ 포함) / '23년 ~ '28년
- ㅇ **(추정사업비)** 5,003억원(부지조성 사업비만 포함, 상부 건축물 미포함)
- ㅇ **(주요시설)** 복합행정타운, 수변데크, 호텔, 광장, 주차장, 공원 등

□ 추진 현황

- ㅇ '20. 9.29. : **사업계획 제안**(IPA→해수부)
- ㅇ '21. 2. 1. : 사업제안서 **타당성 검토**(KMI)
- ㅇ '21. 3~6 : **제3자 제안공모**(해수부)
- ㅇ '21. 8. 2. : **사업제안서 평가**(KMI)
- ㅇ '21. 8. 6. : **우선협상대상자(IPA) 지정 통보**(해수부)
- ㅇ '21. 9.29. : **협상 개시**

□ 토지이용계획(안)

□ 조감도(예시)